

상처 받는 아이들을 쓰다듬는 글쓰기 교육의 힘

《학대 받는 아이들》 펴낸 이호철씨

“아버지가 어제의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고함을 버럭버럭 지르며 우리를 막 때린다.” “우리 집 식구는 내보고 고마 도랑 구석에 처박혀 죽어뿌라 마 한다.”

경북 청도군 문명분교 교사인 이호철씨(50)가 펴낸 《학대 받는 아이들》은 어른들에 의해 상처받은 아이들의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폭력, 어른들이 무심코 뱉은 말 한 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그 내상을 가슴에 쌓아두고 산다. 이씨는 그런 아이들의 상처를 글쓰기를 통해 드러내게 하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준다.

“어릴 적에는 이런 상처를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하면서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에는 응어리로 남게 마련이죠. 이것이 심해지면 부적응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자신이 아이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고 반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죠.”

이씨가 아이들의 상처를 알게 된 건 아이들에게 글쓰기 교육을 시키면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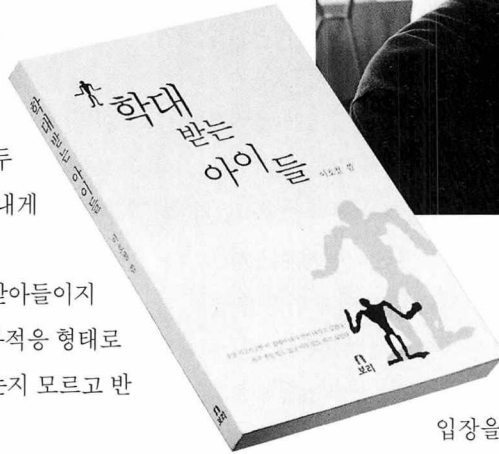
“가치 있는 일이 아닌 줄도 모르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도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다. 그가 글쓰기 교육을 시작한 건 20여년 전. 교단에 나온 지 25년째니까 교직원 생활과 함께 글쓰기 교육을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처음부터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글로 털어놓은 것은 아니다. 아이들이 제 속앓이를 털어놓게 된 것은 교사로서 친구로서 아이들을 진실되게 대하려는 이씨의 노력 덕분이었다. ‘봉숭아 꽃물 들이기’ ‘부모님 발 씻겨 드리기’ 같은 숙제를 통해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웃는 낯으로만 아이들을 대하는 건 아니다. 때로 그는 엄한 선생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씨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다. “좋기는 좋은데 안 좋아. 안 좋기는 안 좋은데 좋아.”

아이들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감싸주는 일은 그리 수월치만은 않은 일이다. 아이들이 가족들 이야기를 솔직하게 쓴 일기를 부모가 읽고 나면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예상될 때는 아이들의 일기를 학교에 두고 다니게 하거나 부모를 불러 엇비슷한 예를 들어 조심스럽게 상담을 하기도 한다.

이 책이 주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지만, 이씨는 모든 잘못을 부모에게만 돌릴 생각은 없다. 이씨 자신도 두 자녀를 둔 아버지고 보니 부모의



이호철씨

보리/A5신/286면/9000원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안다. 어른도 사람이고 삶이 고단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란단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닌 줄도 모르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뒤집어 생각하면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에게도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가 여느 부모와 다른 것은 아이들의 상처를 들여다봐주고 사랑으로 그 상처를 감싸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 나오는 아이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이 땅의 부모들도 함께 읽었으면 하는 것이 이씨의 바람이다.

그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급훈은 ‘참, 사랑, 땀’이다. 그 급훈은 그에게 ‘삶의 지주’가 돼온 것들이다.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일깨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조건 감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회현실을 바로 보는 눈을 길러주는 일이 아이들을 바로 살게 하는 일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글쓰기를 통해 아이들의 상처를 들춰내고 감싸주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 대구·김장근 기자

욕망의 어두운 심연 호출하는 마성의 상상력

《마녀물고기》 펴낸 이평재씨

신인작가 이평재씨(42)는 첫 소설집 《마녀물고기》를 펴내고 다섯 명의 문학담당 기자와 인터뷰했다. 신인으로서의 펍 드문 일이다. 이문열 같은 작가도 아닌데 말이다. 이씨 스스로도 “놀라울 뿐”이라고 말하는 이 현상은 어디에 기인할까?

책날개에 실린 작가 초상이 크게 작용했을지도 모르겠다. 투박한 이름과 달리 그는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매혹적인 외모를 가진 여자다. 책에 실린 작품들도 그가 풍기는 분위기와 흡사하다. <푸른고리문어와의 섹스> <거미 인간 아난시> <아가위나무의 우울>처럼 제목이 낯설고 이국적이다. 무의식이 박차고 나온 듯한 과격한 성표현이 이어지고, 소설공간은 신화적인 풍경으로 꿈틀거린다. 작가를 직접 만나보고 싶게 구미를 당기는 구석이 많은 셈이다.

“소설가는 소설 속에서 죽어버려야 해요. 소설가의 캐릭터를 살리려고 소설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소설이죠.”

이씨는 작가와 작품이 닮았다는 질문을 단칼에 잘라버린다. 반복되는 ‘구멍’ 모티프와 목숨을 걸고 나누는 섹스 등이 윤대녕의 모성 회귀나 백민석의 잔혹극을 연상시킨다고 하자 이번엔 “최근에 다른 작가들의 소설은 본 기억이 없어

“소설가는 소설 속에서 죽어버려야 해요.
소설가의 캐릭터를 살리려고 소설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 소설이죠.”

서’라며 편청을 편다. 펍씩 이씨가 마루야마 겐지 같은 ‘고립주의자’가 아닐까란 생각이 스친다. 그런데 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그는 이른바 ‘문단나들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

“제가 워낙 살갑지 못해요. 저를 뽑아주신 심사위원도 한번밖에 못 뵈었어요. 친구를 사귀는 것도 적성에 안맞구요. 그냥 들입다 소설만 쓰죠. 근데 이게 통했나 봐요. 작품 발표도 꾸준히 했고 책 내자며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거든요.”

문단의 생리를 아는 사람은 이 자랑 아닌 자랑 앞에서 부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사람과 작품 공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세상은 그에게 유난히 너그럽다. 그래서 ‘잘 풀린다’는 말이 어울릴지도 모른다. 이 ‘유난히’라는 말은 물론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원래 이씨는 서양화를 전공한 미술학도였고 졸업 후엔 조그마한 화실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는 자아정체성 때문에 방향하던 무명화가였다. 그러다가 돌파구를 찾은 것이 소설이었다. 그 동안의 습작량을 들여보면 이씨가 대단한



이평재씨

문학동네/A5신/312면/8000원

‘노력파’란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한 30편 정도를 쓰고 나니 소설이 보이더군요. 등단작 <벽 속의 희망>은 그 가운데 제일 잘 쓴 거죠. 나머지는 버렸어요. 많이 쓰고 많이 버리지만 아깝진 않아요. 언제나 새로워야 하는 게 예술이니까요.”

표제작 <마녀물고기>는 인간의 자기파괴 본능을 다룬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망친 주인공이 알 수 없는 여인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점점 죽어간다는 줄거리다. 사고차량에서 쏟아져 주인공의 발목을 휘감던 먹장어가 그의 의식을 계속 옥죄다. 먹장어는 일명 마녀물고기(hag+fish)로 먹이를 공격할 때 상대방 몸으로 들어가 안에서부터 파먹는다는 무서운 물고기다. 이것의 화신인 여자와의 정사는 말 그대로 주인공을 쪽정리로 만들어간다.

이 강렬하고도 마성적인 환각을 통해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본질’의 문제다. 죽음과 섹스의 본능은 그것의 가장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본질은 자연과 진실에 가까운 것이죠”라고 이씨는 강조한다. 그 말은 우리의 익숙한 일상이 오히려 너저분하게 변질된 ‘거짓’이 아니냐고 묻는 듯했다. —강성민 기자

새에 운명적으로 이끌린 남자의 새 사랑법

《새들의 비밀》 펴낸 서정화씨

새 전문 사진가 서정화씨(38)는 15년 동안 오로지 새 사진만을 찍어왔다. 우리나라에서 관찰할 수 있는 4백여종의 새 가운데 그의 카메라에 잡힌 새는 3백여종이 넘는다. 그가 펴낸 《새들의 비밀》에는 가막딱따구리, 검은머리물떼새, 두루미, 쇠제비갈매기, 오목눈이 등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새들의 생태가 사진과 함께 자세히 담겨 있다.

“개밭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야생 조류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면서 이미 많은 종의 새들이 사라졌죠. 새 한종이 사라지면 그 몇배의 식물과 곤충이 함께 사라집니다.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새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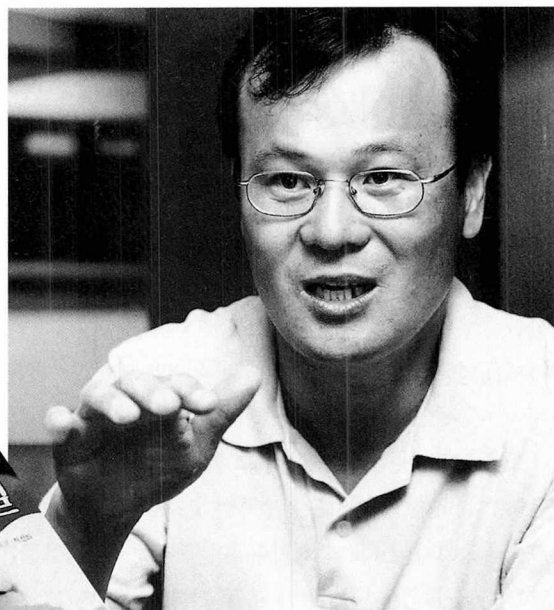
이 책에 실린, 마치 금방이라도 날갯짓을 하며 책 밖으로 날아오를 것 같은 새들의 아름다운 사진도 읽는이의 시선을 붙잡지만, 사진과 함께 펼쳐지는 새들의 생태를 살펴보는 일도 흥미롭다. 새들의 집짓기, 새들의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한 새의 알, 부리와 발의 생김새 등 새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을 서씨는 아빠가

“개밭이라는 명분 아래 자연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새 한종이 사라지면 그 몇배의 식물과 곤충이 함께 사라집니다.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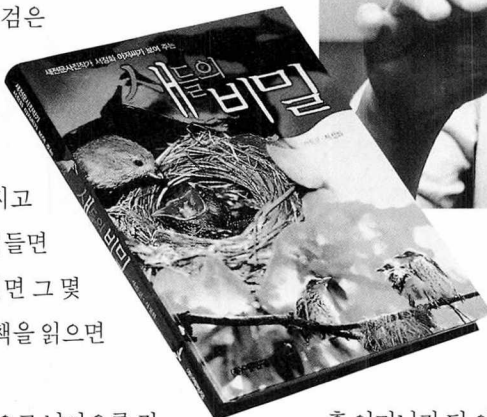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듯 조밀조밀 풀어나간다. 아름다운 구애의 춤을 선보이는 두루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죽는 시늉을 하며 천적을 유인하는 수렁,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놓고 무심하게 떠나버리는 빠꾸기와 빠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 양 끝까지 먹이고 키우는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새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또한 지금은 보기 힘든 천연기념물인 새, 여름철새, 겨울 철새, 우리나라 텃새들의 화보도 실려 있다.

“새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들의 몸짓 하나하나에도 구애, 세력권 다툼, 새끼를 보호하려는 모성애 같은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신과 새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고 그는 회상한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는 새에 푹 빠져 있었다. 하루 종일 새를 쫓아 산과 들을 돌아다녔다.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일이다. 새를 쫓아 밖으로만 쏘다니는 아들이 못마땅한 어머니는 서씨의 옷을 물에 다 적셔버렸다. 입을 옷이 없으면 새를 보러 밖으로 나가지 않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그는 물을 대충 짜내고 젖은 옷을 입고 나갔다. 그 일이 있는



서정화씨



예림당/B5/238면/10,000원

후 어머니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시지 않더라.

신혼여행 갔을 때도 새를 따라다니는 그의 고질병은 어김없이 발동했다. 14일간의 뉴질랜드 신혼여행 동안 그는 신부는 체쳐두고 200롤 가까운 새 사진을 찍었다. 아내에게 “신혼여행을 왔는지 사진을 찍으러 왔는지 모르겠다”는 핀잔도 들었다. 하지만 아내는 누구보다도 든든한 그의 후원자다. 일년에 반 이상을 ‘외박’ 하는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는다.

서씨는 새 사진 찍는 일이 한마디로 ‘몸으로 기는 일’이라고 말한다. 한여름,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위장 텐트 안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탈수상태까지 가기도 했다. 30kg을 웃도는 장비를 메고 날아간 새를 따라 이산에서 저 산으로 하루에도 몇번씩 옮겨다녀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수하는 ‘고행’을 그가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는 바로 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가막딱따구리를 관찰하던 중 어미새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이소시키기 위해 먹이를 물고 밖에서 기다리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새끼들이 두려운지 좀처럼 날려고 하지 않는데도 어미새는 스스로 날아와 받아먹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결국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새끼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순간, 제가 새를 찍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렵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최갑수 기자

튀는 앵커의 느낌 있는 자기고백

《나는 감동을 전하는 기자이고 싶다》 퍼낸 김은혜씨

우리에게 <MBC 아침뉴스>로 친숙한 앵커 김은혜씨(31)가 《나는 감동을 전하는 기자이고 싶다》를 펴냈다. 기자로서 사건현장에서 발로 뚫은 취재기가 인상적인 이 책은 뉴스 이면에 숨어 있는 진실을 생생하게, 포장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 보여준다. 이 책을 쓰기 위해 그는 사회부 수습기자 시절부터 꼼꼼히 정리해 온 취재수첩을 들춰다.

“주로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던 경험과 뒷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제 겨우 9년차인데, 이런 책을 낸다는 게 사실은 쑥스러워요. 그래도 이 책에 의미를 두자면,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보낸 시절을 한 매듭 짓는 것이고, 책을 읽는 분들께 방송 뒷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 있겠죠.”

우리는 매일 아침 TV를 통해 그를 만난다. 시청자와 앵커로서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앵커가 아닌 기자로 기억한다. 지난 6년 동안 그가 기자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다닌 사실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비규환의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에서 발암물질인 석면가루를 마시며 12시간 철야중계를 한 기자가 바로 그고, 평화로운 추석날 아침 전국의 시청자들을 깨우며 지존과 사건을 특종보도한 사람도 그랬기 때문이다. 그는

“앵커는 기자가 발로, 땀으로 건진 기사를 양념을 첨가해 편집하고 배열하는 요리사와 같아요. 여러 사람의 기사를 한눈에 조망해 시청자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게 보도해야 하니까요.”

진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어디든 달려갔다. 그곳이 혈흔이 낭자한 시체가 누워 있는 부검실이든, 유독가스가 가득 찬 화재현장이든 '진실을 캐는 마이크'는 언제나 깨어 있다. 이렇듯 종횡무진 달려온 길이기도 그에겐 '최초의 정당 출입 기자' '최초의 기자 출신 앵커' 등 유난히 수식어가 많다.

“물론 이런 수식이 고맙지만 수식어의 길이만큼 부담도 큼니다. 하지만 '처음'이란 수식어엔 밀알이 되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알의 밀알이 썩어 온전한 한 포기 of 밀을 키워내듯 말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그의 꿈은 플루트 연주가였다. 하지만 음대 입시비리가 적발될 무렵 8년 동안 매진해온 음악공부를 스스로 접었다. 그때부터 기자가 될 것을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언론고시'의 높은 장벽을 넘고 기자가 됐다. 여기까지가 기자가 되기까지 그의 이력이다. 하지만 9년차 중견기자, 아니 이제는 앵커가 된 그는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임을 선언한다.

“느낌, 감각은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다보니 언제나 긴장해



김은혜씨(사진제공 비전코리아)



비전코리아/A5신/288면/8000원

야 하기 때문이지만 저는 좀더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요. 제가 볼 때 감각은 선천적인 기지와 경험에 늘 깨어 있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더해진 거죠. 늘 깨어 있는 자체가 능동적인 자기발전의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는 뉴스 시작 전에 '그래 한번 해보자'라며 스스로에게 '게임'을 건다. 하지만 그순간은 자신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자신을 비워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앵커로서의 신념 때문이다.

“앵커는 기자가 발로, 땀으로 건진 기사를 양념을 첨가해 편집하고 배열하는 요리사와 같아요. 여러 사람의 기사를 한눈에 조망해 시청자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게 보도해야 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기자라는 직업은 아직까지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앵커로, 그리고 기자로 살아오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미지로 접근해 '송곳' 같은 질문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9월이면 미국의 스탠포드대로 유학을 떠난다. 뉴스를 진행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분야를 좀더 배우기 위해서다. 그가 또 어떤 빛깔로 돌아와 시청자 앞에 설지 궁금해진다. —박옥순 기자